

보도시점 (전매체) 3.6.(금) 10:30

중기부, 중동 상황 관련 ‘긴급 물류바우처’ 신설 및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추진

- 중소기업 협·단체 등과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 개최
- 중동 지역에 특화된 ‘긴급 물류바우처’ 도입 및 대체시장 확보 지원
- 중동 상황 등에 따른 고환율 대응을 위한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조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일 (금) 중소기업 유관 협·단체와 「중동 상황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품목별 수출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피고, 수출 중소기업 피해·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일시/장소 : '26.3.6.(금) 10:30 / 중소기업중앙회
- 참석자 : 중기부 장관(주재), 산업부, 중기중앙회, 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전자산업협동조합, DHL코리아, 수출입은행, 무역협회, 중진공

① 중동 수출 중소기업 선제적 모니터링 결과 64건 피해·애로 및 우려

지난 2월 28일(토)부터 시작한 중동 국가 수출 피해·애로를 접수한 결과 (3.5일 18시 기준) 총 80개사 중 64건의 피해·애로 및 우려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피해·애로 사항으로는 운송차질 발생 71.0% (22건), 대금 미수금 38.7% (12건), 물류비 증가 29.0% (9건), 출장 차질 16.1% (5건), 계약보류 12.9% (4건) 등으로 영공 및 호르무즈 해협 폐쇄, 중동 바이어 방한 취소, 선적 수출보험 비용 상승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며 (기업당 복수 응답 포함)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운송차질 우려 66.7% (22건), 바이어 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 어려움 등 15.2% (5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② 기존 지원방안에 더해 ‘긴급 물류바우처’ 신설 및 대체 시장 확보 추진

중동 상황 피해·애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보증 공급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며, 영국 및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따른 운송차질 어려움이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중동 지역에 특화된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해 물류 애로를 완화하고,

* 물류비 한도 상향, 신속한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별도 공고)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한 전략적 수출 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수출 상담·전시회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③ 중동 상황 등에 따른 고환율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 추진

중동 상황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및 고환율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수입비용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경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원부자재 수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특별만기연장을 3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예: 20%)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원금 거치기간 1년 연장 검토

이날 참석한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동으로의 수출이 중단 되면, 이로 인한 기업의 자금흐름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성숙 장관은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애로를 실시간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면서 “‘긴급 물류바우처’와 고환율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신속히 준비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동우 (044-204-7500)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성향용 (044-204-7501) 최영훈 (044-204-7502)